

진도 세월호 아픔 딛고 새로운 성장엔진 단다

국민해양안전관·복합항만배후단지 등 연내 준공 제주 신규 항로 확정 등 각종 인프라 구축 결실

6년 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겪었던 진도군 일대에 물류·관광·산업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진도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추진한 국민해양안전관 건설(270억원), 복합항만배후단지 조성(443억원), 연안여객선 터미널 신설(809억원) 등이 대표적으로, 3개 사업에만 모두 1,522억원을 투입

돼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국민해양안전관은 7만8,996㎡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 중이며, 전국 초중고생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안전체험관과 해양안전정원(추모공원), 유스호텔 등이 들어선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진도항 복합배후단지는 52만1,834㎡ 부지에 국비, 지방비 등 443억원이 투입된다.

수산물 가공시설과 여객 및 화물부두, 휴게공원 등이 들어서고, 항로준설과 진입도로 개설 등이 마무리되면 서남해 해양관광과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둔 국민해양안전관 조감도.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항 복합배후단지 조성의 경우 성토제 사용문제로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문제가 된 석탄제가 타 지역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공기기관

의 성분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성토제로 사용하는 것이 유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며 “공사중지, 법원소송 등으로 준공이 지연됐지만 개발

및 실시계획 등 관계기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숙원사업이었던 진도-제주 간 신규항로에 대한 2022년 3월 취항이 최근 확정돼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 도약의 전기도 마련됐다.

씨월드고속해리워가 사업자로 선정된 진도-제주 간 신규항로에는 대형 쾌속선이 투입돼 여객 700명, 차량 79대 등을 싣고 제주까지 직항운행 시 1시간 30분에 주파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씨월드고속해리워에서 어려운 시기에 과감한 투자로 꿈과 같았던 진도-제주항로가 개설돼 지역주민 교통편 확보와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완도 청산·보길도 관광객 통제 내달 4-5일 여객선 탑승 제한

완도군이 군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4월 4~5일 청산도와 노화·소안·보길도를 찾는 관광객 승선을 통제한다.

코로나19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취소했는데도 주말에 청산도를 찾는 관광객이 1,300여명에 달하고, 노화·소안·보길도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군은 여객선 대표 시 주소를 확인해 청산, 노화, 소안, 보길도 관광객 방문을 통제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지역 사람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를 찾아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한 방문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군은 방문 통제 외에도 매일 2회 이상 여객선터미널·여객선실 내 소독과 승선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완도=최규옥 기자



해남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양식어가를 위한 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 제공

“넙치·전복 양식어가 힘내세요”

해남 소비부진 양식수산물 사주기 호응

해남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양식 수산물 사주기 운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경기위축과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넙치와 전복 소비촉진 행사를 오는 4월 17일까지 진행중이다.

군청 각 부서와 유관 기관별로 구매 희망자를 파악해 신청하면 군청 민원실 앞에서 현장 배부한다. 지난 27일까지 두차례 판매를 통해 약 4,000만원(넙치 430kg, 전복 921kg)가량 주문이 들어오며 양식어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만, 수산물

사주기 운동이 지역 상권 및 수산물 유통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균형과 유관기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들이 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 어려운 어가를 지속적으로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해남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양식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에 양식 수산물 정부 구매와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보전 지원확대 등을 건의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해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본격화

하수용량 포화 선제대응...2024년까지 4,500톤 확장

해남군이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본격 추진한다.

해남읍은 아파트 신축과 마을하수처리구역 확대 등 하수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군은 총사업비 220억원(국비 50%)을 들여 4,500톤을 증설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 운영을 시작한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루 9,000톤을 처리

할 수 있어 증설이 완료되면 1만3,500톤까지 처리 용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해남군은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국가단위의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중요유역단위로 구

분되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이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재수립해야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본계획이다.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오는 10월 완료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29일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질오염 예방과 생태계 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목포 시내버스 재정지원 감독 강화

박용 시의원 조례안 대표발의...심의위 등 구성

목포시가 연간 수입액에 달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9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의원(부흥·신흥·부주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과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운송원가 등 산정, 보조

금 신청 및 지원결정,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관리, 정보공개, 우수사업자 포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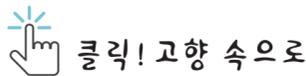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결정은 사업의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심의할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내버

스만의 재정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시의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조금을 받는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기술적인 시내버스사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내버스는 지난 2월 노사의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하루간 기습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재정지원금 33억원, 유가보조금 3억원을 비롯해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여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목포 종교시설 등 1,706곳 집중관리

목포시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행에 따라 종교·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 날인 지난 22일부터 종교시설을 비롯한 집중 관리시설을 직접 방문해 정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와 폐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다. /목포=박승경 기자



강진 장난감도서관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위스타트강진글로벌아동센터가 장난감도서관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서비스를 시작했다.

장난감도서관 드라이브 스루는 이용자들이 직접 도서관을 찾아 장난감을 고르는 대신 예약한 장난감을 차에 탄 채로 받아 가는 ‘자동차 이동형’ 대여소다. 지난 20일부터 위스타트강진글로벌아동센터 주차장에서 운영을 시작



영암 금정면 대봉감 가로수길 정비

영암군 금정면은 최근 관내 국도와 지방도 4개 구간 19km에 걸쳐 식재된 대봉감 가로수길을 정비했다.

정비작업은 금정면 농업경영인회(회장 정철)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819호선 등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대봉감 가로수(1,000주)에 대해 전정, 가지벌레 농약 살포, 쓰레기 제거 등을 진행했다.

대봉감 가로수길은 관광객들이 통행하며 금정면의 대표 특산물인 대봉감나무와 감꽃, 탐스러운 대봉감 열매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홍보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규환 금정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명품 대봉감길 조성에 함께 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성 기자